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사편 16:8-11, 마태복음 28:1-10

최정웅 목사님

Happy Easter! 부활절을 축하한다. 교회 명절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부활절이다. 초대교회는 부활절만 지켰다. 성탄절은 4세기가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카드로 부활절에 보냈었다. 부활절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힘을 얻어서 세계복음화를 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누림으로 큰 힘을 얻었던 초대교인들처럼, 오늘 복잡하고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오늘 순서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집중적으로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보겠다.

먼저 서론에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온다. 많은 어려움과 혼란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여호수아 1장에서도, 이사야 41장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까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문제를 만나니까 다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해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50일 후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을 걸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말하는 성도가 되었다. 주의 종들이 되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이다. 모든 두려움을 무너뜨리고, 불안을 이기고, 참된 평안으로 승리하는 이번 부활절, 또 남은 생애 되기를 축복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 그리스도는 무덤에 묵일 수 없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무덤에 묵일 수 없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6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 그분은 무덤에 시체로 계실 분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사도행전 2:24에 베드로는,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는 묵이실 수 없는 분이시다. 세 가지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깨끗이, 영원히 무너졌다.

(1) 첫 번째 무너진 게 뭐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지옥의 권세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꿇게 되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 지옥 배경에서 살게 되었다.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된 것이다. 아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권력으로도 안 된다. 얼굴 예뻐도 못 가고 착해도 못 간다.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구주시다. 요한복음 14:6대로,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베드로전서 3:18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고 했다. 베드로전서 3:19에는, 음부의 권세에까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셨다고 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옥의 운명을 완전히 해결한 사건이었다.

(2) 두 번째는, 죽음의 권세가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다. 죽음은 왜 왔는가? 로마서 6:23에 보니까, 죽음은 죄의 삯이라고 했다. 창세기 3:16-20에 보면,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다. 로마서 5:12에 보니까,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가 용서받을 길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죄 문제가 끝났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다. 죄의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57이 이렇게 말한다.

(3)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이 무너진 사건이었다.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고,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고, 마귀의 세력까지도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사망 권세를 붙잡은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졌다. 요한복음 8:44에,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요한복음 10:10의 말씀대로, 마귀는 죽이고 빼앗는 존재인데, 이게 세상 임금, 세상 신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다. 히브리서 2:14에, 사망으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다고 했다. 요한일서 3:8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고린도전서 15:26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이 사망해 버렸다. 그리스도를 묶어둘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죽음도 무덤도 사단도 그리스도를 가둘 수 없었다. 그분은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모든 것을 이기셨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고 누리시기를 축복한다. 고린도전서 15:20을 보면, 그는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모든 믿는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원수들은 무덤을 지켰던 군사들에게 돈을 주고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었고, 이것을 군인들이 보았고 여자들이 보았고 제자들이 보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감추려고 여러 가지 설을 만들었다. 기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말은 살아났다는 말이 된다. 환상설을 주장했는데, 보았다는 말 아닌가. 도난설을 주장했는데, 무덤이 비었다는 말이다. 아무도 못 열도록 돌로 무덤을 막고, 그것을 봉인하고, 성전수비대와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지켰다. 그런데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보고 전부 혼비백산해 버렸다. 그 본 것을 그대로 보고했더니, 돈을 주면서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했던 사건이 부활 사건이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그분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다. 나는 두 번 가 봤는데, 그 무덤은 비어 있다. 거기에는 부활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무덤에 묵일 수 없는 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지옥과 죽음과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격파하고 부활하신 것이다.

2.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셨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이기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끝내고 이기셨다.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말이다.

(1)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되게 하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근본 문제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다 해결하셨다. 창세기 3장을 무너뜨린 창세기 3:15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창세기 6장을 무너뜨린 창세기 6:14, 창세기 11장을 무너뜨린 창세기 12:1-3은 전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한 것이다. 그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구약의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구약의 말씀 그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가면 모든 문제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다. 그

리스도 이름 부르다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한다. 여러분, 성전 문에 있던 앓은 뱀이가 돈 좀 달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돈, 권력, 지식을 준 게 아니다. 그리스도만 선포했는데 앓은뱀이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그 이름으로 해결되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체험해 보라. 그러면 믿게 된다. 모든 염려를 맡기게 된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알게 된다. 지금 보면 여러분 얼굴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는 얼굴이다. 정말 체험해 보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던데 아니더라’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결론이 안 난 것이다. 끝이 안 났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전능자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우리 성도 가족이 상을 당해서 문상을 갔는데, 천주교 가정이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성부님, 아가다가 갑니다. 문을 열어 주세요. 성자님, 문을 열어 주세요. 성령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기에, ‘아, 우리와 같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모님, 문을 열어주세요. 바오로님, 베드로님, 야고보님, 빌립님…….” 오만 이름을 다 부르더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모자란 것이다. ‘최정웅님, 문을 열어 주세요’ 그러지는 않더라. (웃음)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자란 신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뭔가 해야 하는 줄 알고 행위를 주장한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충분하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2) 모든 묶여 있는 불신자 상태를 완전히 무너뜨린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마귀 자녀 된 영적 문제, 우상숭배하는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문제, 후대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전부 끝내셨다는 말이다. 요한복음 19:30에 말씀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다. 인류 구속,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이루셨다. 로마서 8:2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이 영원히 해방하셨다. 그리스도는 무덤에 묶이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우리를 해방하시고 풀어 주셨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가고 있던 나사로를 무덤 앞에서 불러내어 살려내신 분이 주님이시다. 세마포로 묶어놓았던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묶인 것에서 풀어주시고 다니게 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부활이시며 생명이시다. 이것을 믿고 승리하고 누리는 오늘 부활절과 남은 생애 되기를 축복한다.

(3) 그리스도 안에서 가문의 문제도 무너지도록 해결하셨다. 오랫동안 현장과 가문과 가정을 잡고 있던 것이 무속, 점술, 우상인데, 이것도 주님이 해결하셨다. 이 모든 사단 문화를 이기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는 모든 나라, 모든 현장에서 저주 문화는 무너졌다. 정말 믿는 사람에 의해서 무너졌다. 오늘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한다. 아직도 권사님들 중에서 점치러 다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 전부 필요없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했다. 자기가 방언을 해도 잘 안 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목사님은 어떤 은사가 있으시냐, 도와달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도움 끝나면 도로 돌아가 버린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아들, 남편, 목사 의지하지 마라. 정말 당신이 예수 영접한 것 맞느냐. 정말 믿는 게 맞느냐.” “믿기는 믿지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 영접해야 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는가?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을 믿

으시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믿으시는가? 그러면 된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임을 체험하면 된다.” 처음 듣는다고 하더라. 이것을 모르니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나는 위례양에 시달렸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만나절, 한 네 시간을 불렀다. 그렇게 두 번 정도 했다. 그때 병 고쳐 달라, 힘 내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질병이 어디로 가 버렸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알아라.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 가정 문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선포하면, 모든 흑암 문화는 무너지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결론을 말씀드린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둬두고 감춰두고 있다. 그리스도는 무덤에 계실 분이 아닌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꾸 제한하려고 한다. 이번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둬두지 마라. 그리스도는 영적인 문제와 함께 모든 문제를 끝내 버리신 분이시다. 그분은 완전하시다. 그리스도는 충분한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선포했다. 빌립보서 4:13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일곱 램넛트가 그 모델이다. 부모님을 떠나도 괜찮고 노예가 되어도 괜찮다. 머슴하고도 다른 게 노예다. 값이 짐승과 똑같다. 말 한 마리보다 못할 때가 많았다. 말을 할 수 있는 재산에 불과했다. 죽여도 괜찮았다. 그런 처지에 처했는데 괜찮았다. 감옥에 갇혔는데 괜찮았다. 총리가 되어도 괜찮았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부활절이 되시기 바란다. 지성인들의 계산으로는 절대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다. 과학적으로 다 알 수 없는 이야기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란다. 그리스도를 제한하지 말고,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나타내고 선포하시기를 바란다.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하며, 그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 되기를 축복한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 간다. 가난해도, 병 좀 있어도, 실재 좀 해도 괜찮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쭙 보라. 기도해 보라. 단 하루 밤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지 않은가? 하나님은,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신다. 이것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란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까지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 2017년 부활절에 우리 참사랑 가족들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지 말게 하시고, 제한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불신양하지 않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참사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